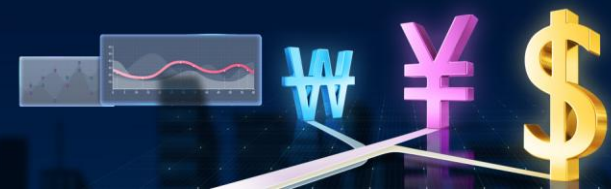


Eugene's FICC Update



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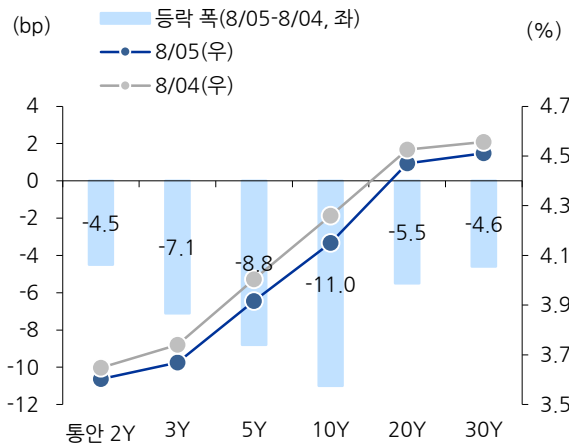
Fixed Income 김지나_02)368-6149_jnkim0526@eugenefn.com RA 차영후_02)368-6138_yhcha@eugenefn.com

Fixed Income

(단위: %,bp, 톱)

		8/5일	1D	1W	YTD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3.669%	-7.1	-13.1	71.6
	한국 국고채 10년물	4.150%	-11.0	-10.7	76.5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bp)	48.1	52.0	45.7	43.2
	3년 국채 선물(KTB)	103.53	20.0	44.0	-191.0
	10년 국채선물(LKTB)	106.87	91.0	103.0	-605.0
해외 채권	미국채 2년물	4.186%	-0.9	-8.8	71.4
	미국채 10년물	4.616%	0.1	-6.3	44.8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bp)	43.0	42.1	40.5	69.6
	독일국채 10년물	3.128%	0.0	-5.0	27.3
	호주국채 10년물	4.907%	-6.1	-5.8	15.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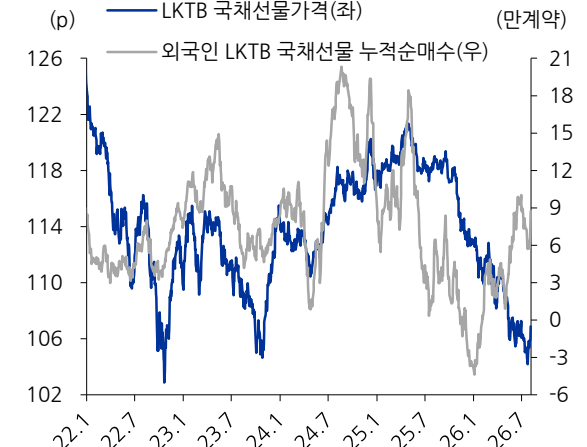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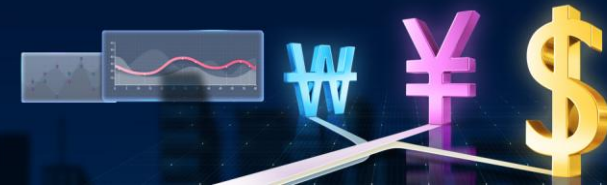
- 국내 채권시장 전구간 대폭 강세 마감. 불 플래트닝.
- 전일 베센트 재무장관의 호르무즈 재개방 및 이란과의 협상 언급으로 국제유가 빠르게 급락한 영향. 개장 초부터 금리 전구간 급락 출발.
- 외국인, 3년 국채선물을 10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며 강세 견인했음. 8월 금통위 연속 인상에 대한 우려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인상 선반영이 되돌려지고 있음.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강보합 마감.
-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기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지표에 연동되는 흐름. 미국 7월 ADP 민간고용이 전월 대비 4.4만명 증가하면서 예상치 큰 폭 하회했음. 6월 수치 역시 하향되면서 금리 소폭 하락.
- 이후 미국 재무부에서 분기국채발행계획을 발표했는데, 향후 3달 발행 규모는 종전과 같았으나 명목 이표채와 FRN에 대해서 향후 증액 -> 변동 가능성으로 문구 수정되며 입찰 감액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일부 반영. ISM 서비스업 PIM가 예상치 하회했지만 물가지수 상승하자 금리 일시적으로 상승하기도 함.

자료 출처: 연한인포맥스, Refinitiv, 유진투자증권

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, 특정주식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.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,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.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 의사 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져야 하고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.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/전송/인용/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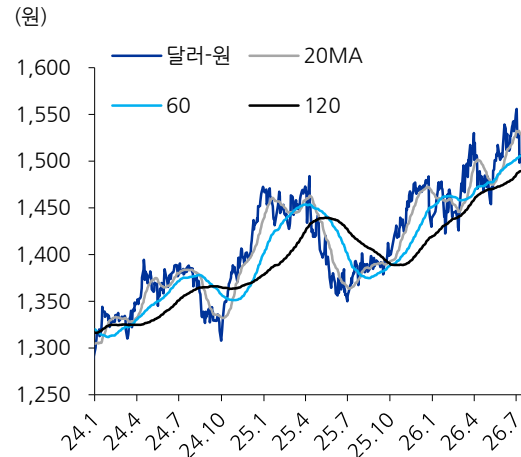


FX & Commodit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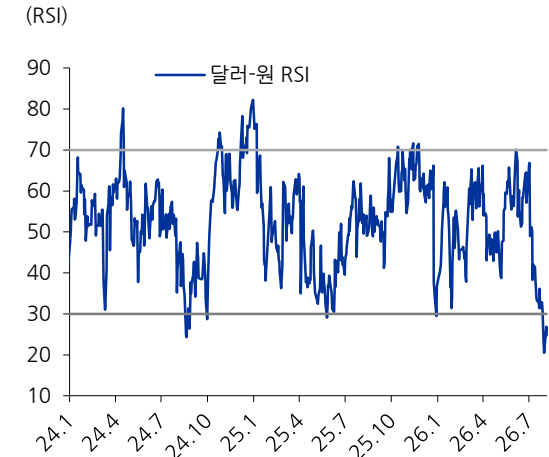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 \$)

		8/5일	1D	1W	YTD
환율	원/달러	1,424.50	-0.6%	-1.5%	-1.0%
	달러지수	99.69	-0.2%	-1.1%	1.4%
	달러/유로	1.16	0.2%	0.7%	-1.6%
	위안/달러(역외)	6.75	0.0%	-0.2%	-3.4%
	엔/달러	157.75	0.0%	-3.4%	0.7%
	달러/파운드	1.35	0.1%	0.7%	0.0%
	헤알/달러	5.12	-0.5%	0.1%	-7.2%
상품	WTI 근월물(\$)	75.22	-0.7%	-10.9%	31.0%
	금 현물(\$)	4,247.43	4.2%	4.4%	-1.6%
	비트코인(\$)	65,080	0.9%	2.4%	-25.9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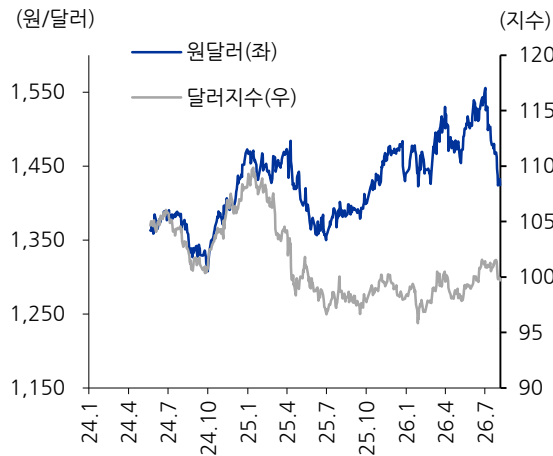
달러 원 환율 및 이동평균선



달러 원 환율 상대강도지수



달러 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동향



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은 중동 리스크 완화와 베센트 美 재무장관의 엔 공조 개입 관련 발언에 -8.00원 내린 1,424.50원에 마감(야간 1,422.50원).
- 8/4일, 베센트 美 재무장관이 오늘이나 내일 중 호르무즈 해협 개방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해 중동 긴장감 완화되며 국제유가 하락하고 달러 약세 압력으로 작용.
- 또한 그는 최근 일본과 공조한 엔화 매수 개입에 대해 엔화가 아시아 지역 전체에 중요한 통화이며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고 발언. 이에 추가 개입에 대한 경계 이어지며 원화 상승을 지지.
- 원달러 환율은 달러 하락 반영되며 야간거래에서 -2.00원 추가 하락. 최근 수출업체 매도와 저가 매수 유입이 팽팽한 가운데 중동 리스크 축소는 원달러 환율 하락 요인. 8/7일 발표될 美 고용지표 또한 주요 변수.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인덱스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기대감에 하락 (DXY -0.2%).
-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로 좌표에 대한 오만과의 합의가 이뤄졌고, 곧 공동 설명을 발표하겠다고 전하면서 달러 하방 압력으로 작용.
- 다만 이란 측은 즉각적인 해협 재개방은 결코 아니라며 선을 그었고,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사우디 유조선 2척을 공격했다고 주장해 유가 하락은 제한(WTI -0.7%).
- 한편 7월 ISM 서비스업 PMI가 54.1로 시장 예상(54.5)을 하회했고, 7월 ADP 민간고용은 +4.4만명 증가로 예상(+7만명) 하회하며 달러 약세를 지지.
- 달러는 8/7일 발표될 美 7월 고용지표에 따라 단기 방향성 결정될 전망.